

# 노란 리본...분향소...‘기억’·‘연대’로 안전사회 구축

## 세월호 참사 10주기

〈하〉남은 이들의 과제

### 예방·수습 등 총괄 재난안전관리본부 ‘이태원’ 대응 실패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4년째 계류...22대 국회 행보 주목

세월호 참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노란 리본’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는 이제 매년 4월이 아니면 보기 어렵다.

광주에서도 참사 이듬해인 2015년부터 매년 시민 주도로 분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추모객이 줄어드는 등 관심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15일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문을 연 분향소에 올해 현재까지 10만명이 넘는 추모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모객은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1시 기준 3천여명으로, 운영 기간이 하루 남긴 했지만 지난해 총 1만여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관계자는 “해가 지날수록 추모객이 줄어드는 게 확연히 느껴진다”며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참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재난의 예방부터 발생 후 대처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완전한 정착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국회에선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쏟아졌는데, 이를 총괄라 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재난 분야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단원고 4·16기억교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설됐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출범 3년도 안 돼서 개편을 맞아 현재 그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맡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유관기관이 긴 급구조에 함께할 때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경찰·소방·해경 등이 신속하게 소통하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을 구

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 것과 달리 기관과 책임자의 태도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머물고 있었던 탓에 2022년 10월29일 재난 상황이었던 이태원을 향한 컨트롤

타위는 제 때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되풀이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 발의했다. 모든 국민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겨 있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22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겨우 남은 시점에서 통과에 요원해 보여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22대 국회에 ‘생명 안전 국회’를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는 동안 각종 참사는 이어져 왔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선 건 대책이 아니라 피해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법 제정이 필수”라며 “세월호뿐만 아닌 여러 참사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추모에 함께함으로써 ‘안전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은정기자

## ‘직원 음주 비위’ 광주 서부경찰서장 대기발령

### 경찰청 감찰 결과 ‘관리자급’ 경질...과장도 포함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라 적발된 광주 서부경찰서의 서장과 간부 경찰관이 잇따라 대기발령 조치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16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문병훈 서부경찰서장을 광주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자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문 서장과 A 과장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생한 서부경찰서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찰 결과·관리 책임 등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서장의 후임자는 광주경찰청 장명본 차안정보과장이며, A 과장의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지역 경찰의 잇따른 음주운전 비위는 지난 12일 동부경찰서 소속 B

경감의 사례까지 총 5건으로, 이 중 3건이 서부경찰서 소속이다.

지난 3일 오후 9시20분께 서부경찰서 소속 C 경감은 서구 풍암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 아 입건됐다. 당시 C 경감은 사고 수습도 중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상대 차량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3·1절 연휴에는 서부경찰서 급호지구대 소속 D 경위가 만취 운전 중 차를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시민의 신고로 들통나 해임됐다.

지난 2월2일에도 서부경찰서 소속 E 경위가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직원들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반복되자 경찰청 감찰과는 지난 4일부터 광주 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강

도 높은 감찰을 했다.

광주경찰청도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음주운전 관련 공직기강 확립’ 제1호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주성학기자

**곡성 1t 트럭 저수지 추락...2명 사망**

곡성군 한 저수지 인근에서 1t 트럭이 추락해 운전자 등 2명이 사망했다.

15일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께 곡성군 오곡면 한 교각에서 1t 트럭이 저수지로 추락했다.

차량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운전자 A(73)씨와 동승자 B(69)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차량은 탈선방지레일을 들이받고 4m 아래 저수지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곡성=김영필기자

## “엄마 살려내라” 병원서 대성통곡 50대女 벌금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법원, 50만원 선고

응급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친이 사망하자 “살려내라”며 약 1시간40분 동안 대성통곡을 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0대·여)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순천시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 어머니 B씨가 혼수 상태로 있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B씨가 사망하자 약 1시간40분 동안 “살려내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의료진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료진은 B씨 사망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A씨는 이 탓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주장하며 같이 행동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료진에게 고향

을 질러 당시 응급실에 있던 환자 6~7명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어머니의 사망으로 격양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후 A씨가 항소하면서 광주지방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식송달 방법으로 전달했으나, 항소 이유서가 접수 마감 기간 내 제출되지 않았다.

또 A씨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유 기가제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조사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안재영기자

## 경찰, 허경영 ‘성추행 피소’ 하늘궁 압수수색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신고들로부터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 양주

시 장흥면의 종교시설인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허 대표의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성추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에 너지주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증거 자료를 통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치기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함께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b>대상</b>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b>정부지원</b>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b>양육공백기준</b>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b>서비스 유형(기준종위소득)</b>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b>시간제서비스</b>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b>영아종일제서비스</b>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b>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b>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지원연락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